

국내 대기환경 전문가 모여 오존 등 대기질 개선 정책 진단 나선다

- 국립환경과학원·한국대기환경학회 공동주최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 개최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기 중 오존농도 상승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4월 17일 연세대학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국내외 대기환경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을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1차) 오존관리 정책 진단 및 향후 방향, (2차) 기후변화와 대기질 관련 연구,
(3차) 인공지능(AI) 기반 대기질 예측·관리 및 첨단기술 활용 배출원 감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 한계 및 개선방안

제1차 학술토론회는 ‘오존관리 정책 진단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오존농도 증가 원인 분석과 집중 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오존 저감 전략 및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국내 대기 중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의 연관되어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관리에서 더 나아가 오존 등 광화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당일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오존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의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연중 5~8월에 오존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늘/내일/모레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하루 4회 예보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정부기관과 학계가 협업하여 국내 대기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여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 일정.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책임자	과 장	강대일 (032-560-7330)
		담당자	연구관	김록호 (032-560-7333)
연구사	김기홍 (032-560-7340)			



□ 오존

- 질소산화물(NO_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국내 오존농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일조량 증가는 오존이 생성되기 좋은 조건이 되어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오존은 호흡기 자극과 폐기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붙임 2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 일정

□ 일시/장소 : 2026년 4월 17일(금)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1호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대상
13:30 ~ 14:00	참석자 등록	참석자
14:00 ~ 14:05	개회사	송지현 회장 (한국대기환경학회)
14:05 ~ 14:10	환영사	박연재 원장 (국립환경과학원)
14:10 ~ 14:15	기념촬영	참석자
14:15 ~ 16:15 (주제별 30분 발표)	발표	좌장 : 이강웅 고문 (한국대기환경학회)
	① 국내 오존 현황 및 집중조사계획 : 국내 주요 지역의 오존 농도 현황과 시공간적 분포 특성, 오존 생성 메커니즘 규명연구 계획 소개	박정후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② 대도시 고농도 오존 발생과 시사점 : 주요 대도시 고농도 오존 에피소드의 원인과 기상·배출 조건분석, 정책적 대응 방향 제시	심창섭 박사 (한국환경연구원)
	③ 오존 관리 정책과 과학적 이해의 연결 : 오존 전구물질 분석을 토대로 고농도가 집중되는 핫스팟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저감 전략 제안	김순태 교수 (아주대학교)
	④ 오존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방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주요 배출원과 오존 생성기여도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관리 방안 논의	유경선 교수 (광운대학교)
16:15 ~ 16:25	휴식시간	
16:25 ~ 17:25	토론	성지원 부장 (국립환경과학원) 백성욱 교수 (한국대기환경학회) 좌장 및 발표자(4인)
17:25 ~ 17:30	폐회	